

보도 일시	2022. 3. 1.(화) 10:00	배포 일시	2022. 2. 28.(월) 10:00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곽 정 (031-750-2209)
		담당자	연구관 나미선 (031-750-2032)
			연구사 조은혜 (031-750-2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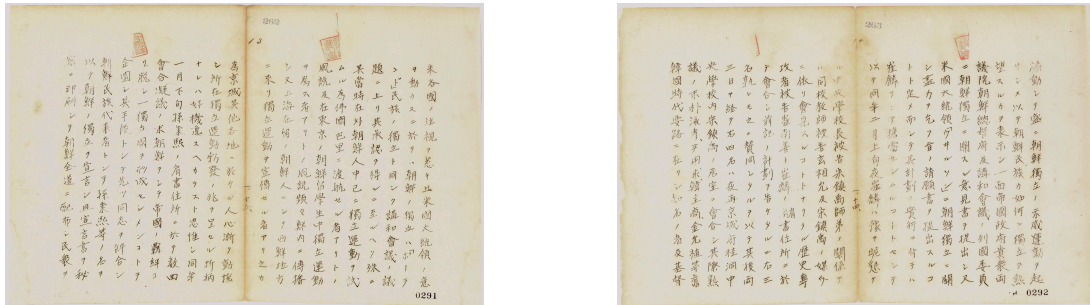
3·1운동 앞장 선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 국가기록원, 1919년 경성지방법원 등의 판결문 1,149매 복원해 공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 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하였다고 밝혔다.
- 복원된 기록물은 3·1 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그 외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 48명은 1919년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 ※ 민족대표 33인 중 31인(상하이 망명김병조, 옥사한 양한묵 제외), 3·1운동에 앞장 선 17명
 -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포(1919.3.1.)부터 최종 판결(1920.10.30.)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다.
-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1919년 1월, 손병희, 최린 등 천도계의 발의로 시작하여 최린이 최남선과 접촉하고 이어 기독교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과 박상규도 합세하는 등 종교계를 비롯해 학생 세력까지 규합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 최남선은 ‘우리는 이에 우리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후 김홍규가 2만 1천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미리 정한 지역 배부책을 통해 배포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마침내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자들은 명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한편, 평양, 진남포, 의주, 원산 등 지방 각지에서도 조직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 고등법원 판결문(형사재판서원본) 1920. 3.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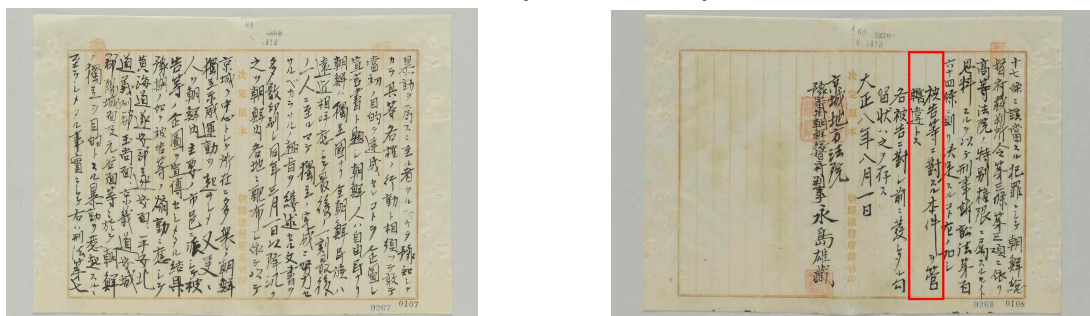


(주요 내용) 1월 하순 손병희는 주소지에서 여러 차례 회합, 응의한 끝에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한 독립국을 형성하게 할 것을 기도하고, 그 수단으로써 우선 동지를 규합하고 조선민족대표자로서 손병희 등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또 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중략>... 조선민족이 어떻게 독립을 열망하는지를 표시하는 한편 제국정부 귀중 양 의원, 조선총독부와 강화회의 열국 위원들에게 조선독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조선독립에 곤하여 힘써줄 것을 바란다.'는 뜻의 청원서 제출하기로...

- 판결문을 통해,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은 명월관에서, 나머지 핵심 참가자는 경성, 수안군, 의주읍, 일본 동경 등 각 지역 독립운동 현장에서 체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성지방법원 예심 판결문에서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여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으나(1919. 8. 1.),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돌려보낸 사실도 담겨 있다.(1920. 8. 9.)

* 폭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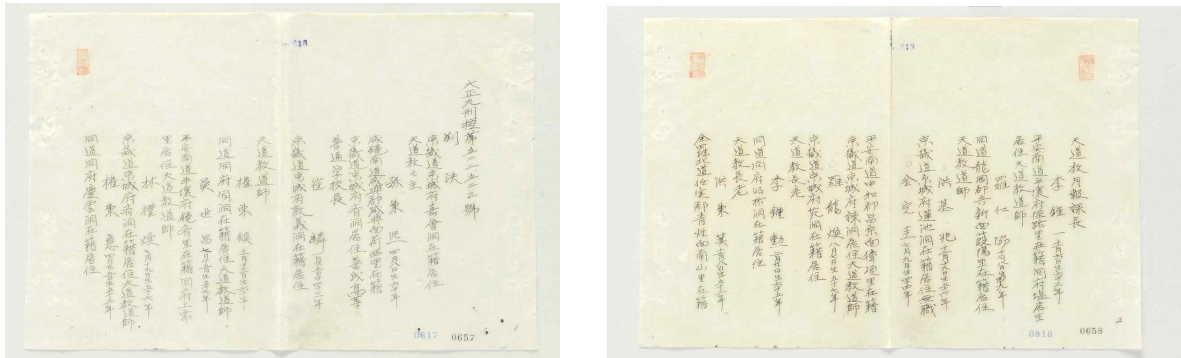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형사판결원본) 1919. 8. 1. >



(주요 내용) 조선은 독립국이며, 전 조선민족은 원근 상호 응하여 최후의 일각(一刻), 최후의 일인(一人)에 이르기까지 독립의 완성에 노력해야만 한다는 취지를 누술(縷述)한 문서를 다수 인쇄하고, 동년 3월 1일 이후 이것을 조선 내 각 지에 배포함으로써.. 그 결과, 예상과 같이...<중략>...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발기하기에 이르도록 한 사실으로써 위는 형법 제7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써...피고 등에 대한 본 건을 관할 위(違)로 한다. *내란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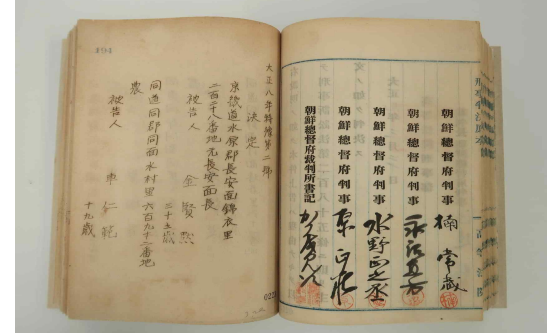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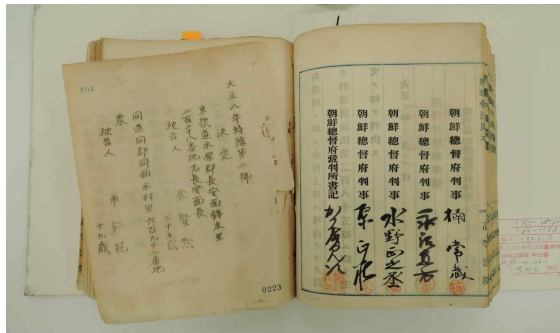
- 하지만 경성법원은 공소 불수리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이후 1년 7개월간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48인 중 37인은 「보안법」, 「출판법」,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등을 적용하여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년형의 유죄판결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1920. 10. 30.)

< 경성복심법원 판결문(형사판결원본) 1920. 10. 30. >



(주요 내용) 주문 - 원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심 치 당심(當審)에서 피고 변호인으로부터 한 공소 불수리의 신청은 모두 이를 각하한다. 피고 손병희, 최린, 권동진, 오세창, 오종일, 이인환, 함태영, 한용운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최남선, 이갑성, 김창준, 오화영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 임예환, 나인협, 홍기조, 김완규, 나용환, 이종훈, 홍병기, 박준승, 권병덕, 양전백, 이명룡, 박희도, 최성모, 신홍식, 이필주, 박동완, 신석구, 유여대, 강기덕, 김원벽을 각 2년에 처한다...<중략>

- 국가기록원은 48인의 판결 기록에는 3·1운동 전개 과정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재판 과정,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내리려 했던 처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건 규정 등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3·1운동 핵심 참가자 48인의 판결 기록인 형사판결원본과 형사재판서원본 1,149매에 대한 복원처리를 진행하였다.
- 백 년 이상 된 기록물은 찢김, 구겨짐 등 물리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표지와 책등 부분의 결실과 불안정한 제본 상태로 인한 추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부드러운 붓과 클리닝스펀지를 이용하여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보존성이 우수한 한지를 기록물과 유사한 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찢어지거나 결실된 부분을 보강하고 훼손된 표지 부분을 제작하여 원래 기록물의 형태로 제본하는 등의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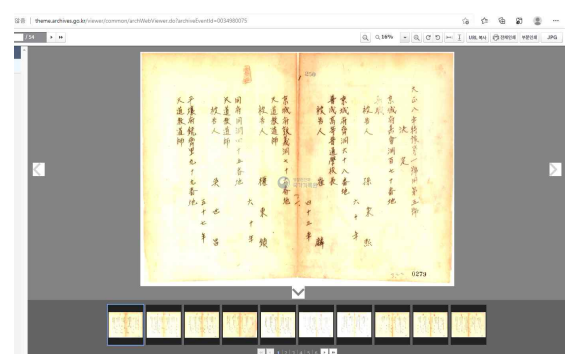
< 처리 전 >

< 처리 후 >

☐ 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는 복원 전 스캔한 흑백 이미지를 복원 후 가독성을 향상시킨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새롭게 교체하였다. 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3·1운동 핵심 참가자 관련 원문 및 번역본 보기 >



< 고해상도 원문 이미지 >

- 김도형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3·1운동은 한국인이 전 세계에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과 중요 관련자 48인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판결문」 자료이다. 독립선언 주도자 48인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자료는 3·1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말했다.
-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3·1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었던 독립의 도화선이 된 3·1운동 관련 선열들의 기록물을 복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48인의 판결문 복원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흘린 피와 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참고 1

3·1운동 핵심 참가자 48인 명단

연번	종교	이름	직책	연번	종교	이름	직책
1	천도교 (14)	손병희	천도교 3대 교주	25		양전백	장로교 목사
2		권동진	천도교 도사	26		길선주	장로교 목사
3		오세창	천도교 도사	27		유여대	장로교 목사
4		임예환	천도교 도사	28		이명룡	장로교 장로
5		나인협	천도교 도사	29		정춘수	남감리교 목사
6		홍기조	천도교 도사	30	불교 (2)	한용운	신흥사 승려
7		박준승	천도교 도사	31		백상규 (백용성)	해인사 승려
8		권병덕	천도교 도사	32	천도교 (4)	박인호	천도교 4세 교주
9		김완규	천도교 전제관장	33		노현용	천도교 중앙총부금융관장
10		나용환	천도교 도사	34		이경섭	천도교 봉훈
11		이종훈	천도교 장로	35		한병익	천도교 신도
12		홍병기	천도교 장로	36	기독교 (5)	김도태	명신학교 교사
13		이종일	천도교 월보과장 (보성사 사장)	37		안세환	평양 기독교서원 총무
14		최린	보성고보 교장	38		함태영	세브란스 예배당 조사
15	기독교 (15)	이인환 (이승훈)	장로교 장로	39		김원벽	연희전문 3년생
16		박희도	중앙기독교 청년회 간사	40		김세환	삼일여학교 학감
17		이갑성	세브란스 의전부설병원 사무원	41	일반 (8)	임규	경성부 일본어 교사
18		오화영	남감리교 목사	42		김홍규	보성사 공장 감독
19		최성모	북감리교 목사	43		송진우	중앙학교 교장
20		이필주	정동교회 목사	44		현상윤	중앙학교 교사
21		김창준	북감리교 전도사	45		최남선	출판업
22		신석구	남감리교 목사	46		강기덕	보성법률상업전문 3년생
23		박동완	기독교신보사 서기	47		정노식	재일 유학생
24		신홍식	북감리교 목사	48		김지환	일본 유학 후 귀국

31인 (33인중 옥중 사망한 양한묵, 망명한 김병조 제외)

17인

참고 2**3 · 1운동 핵심 참가자 48인이 선고받은 형량**

형량	인원	이름
징역 3년	8	손병희,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이인환(이승훈), 함태영, 한용운
징역 2년 6월	4	최남선, 이갑성, 김창준, 오화영
징역 2년	20	임예환, 나인협, 홍기조, 김완규, 나용환, 이종훈, 홍병기, 박준승, 권병덕, 양전백, 이명룡, 박희도, 최성모, 신흥식, 이필주, 박동완, 신석구, 유여대, 강기덕, 김원벽
징역 1년 6월	3	이경섭, 정춘수, 백상규(백용성)
징역 1년	2	한병익, 김홍규
무죄	11	박인호, 노헌용, 송진우, 현상윤, 정노식, 김도태, 길선주, 임규, 안세환, 김지환, 김세환
합계	48	